

유엔 인턴십 도전기 : 꿈이라는 그릇에 넣은 실천 한 스푼

성 명 : 박송희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본부 (UNESCAP Headquarter)

무역개발부 민간개발부서

직 위 : 인턴

지원 경로 : 각 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지원

근무 기간 : 2009.8.1.-2009.12.31.

도전의 시작 :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곳, 유엔

내게 있어 유엔 인턴십은 화려한 이미지에 이끌린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만난 감사한 기회였다. 특히 국경을 넘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빈곤 퇴치 및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 이외에 영향력 있는 민간 및 외부 NGO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점이었다. 영미문화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던 학부생으로서, 그 당시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의 그라민 은행 (Grameen Bank) 사회적 기업 모델은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였다. 방글라데시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작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 사회 빈곤 퇴치는 물론 개발 인프라와 여성 인권 문제까지 해소할 정도로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2008년 교환학생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University of San Francisco) 와 리하이 대학교 (Lehigh University)에서 공부하면서, 현지 탐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접점에 서서 물 부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개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과 NGO 및 유엔 뉴욕본부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Net Impact라는 NGO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엔이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모델을 통해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개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고, 관련 국제기구에서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내 손으로 직접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다.

인턴십 지원 : 대학원생이나 경력 전문가만 가능하다? 학부생도 가능하다!

누군가가 지금 내게 국제기구 인턴십에 도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관심사와 분야를 뚜렷하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비록 대부분의 인턴십 조건이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고 학부생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열정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도전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본인의 경우 먼저 UN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조직도 (첨부1 참고) 를 출력해 각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일반 웹 포털과 UN 채용 포털인 “UN Careers” 검색을 통해 꼭 일하고 싶은 분야의 국제기구 정보를 수집한 뒤, 인턴십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한 영문 이력서, 영문 자기소개서는 필수이며, 부가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나 논문, 저널 등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학원생이 아니었기에 논문과 저널은 없었지만, 국내 신문사 학생기자로 일하며 UN 글로벌 컴팩트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에 대해 취재한 기사와 교내 정치학 강의에 제출한 영문 에세이를 편집해 2009년 1월 약 20여개의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에게 전송했다. 순수한 열정은 높이 사나 여건 상 학부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회신이 온 경우에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당 부서에 공석이 생길 경우 꼭 기회를 달라는 진정성이 담긴 회신도 잊지 않았다.

서류를 제출한 지 6개월이 지난 2009년 7월, 예고 없이 태국 방콕에 위치한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무역개발부 소속 컨설턴트 분으로부터 처음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국제기구 인턴십은 지원자도 많고 채용 절차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학부생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열정적으로 전달한 덕분에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틀 후, 인사 담당자를 통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급히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기에 2주 안으로 방콕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동남아에서 가장 심각한 신종플루가 발생한 곳이 태국이었고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었으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결심이 컸기에 고민하지 않고 방콕으로 날아갔다. 향후 국제기구의 직원이 된다면 이런 선택은 근무지에 따라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될지도 모른다. 대중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유엔 근무의 화려한 이미지만을 보고 막연한 동경을 갖지만, 실제 유엔 직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묵묵히 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턴십 기간 : (1) 글로벌 컴팩트를 위해 전력 질주한 5개월의 본부 근무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인턴십을 하게 된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이하 UNESCAP)는 유엔 내부에 있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이자 경제사회 분야 개발과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나는 UNESCAP의 여러 하부조직 중 무역개발부의 민간개발부서 소속으로 아태 지역에서 UN 글로벌 컴팩트 (이하 UNGC) 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 홍콩 출신의 P직원 상사이신 Helina Lam님을 필두로 우크라이나 출신 컨설턴트 Martynenko 와 프랑스 HEC MBA 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 인턴 1명과 함께 한 팀으로 일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UNGC는 사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다. 코카콜라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부터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개 국가에서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으로 전 세계 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을 지지하고 있다. 글로벌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UNESCAP에서는 아태 지역을 관장하고 있어, 팀 분들이 뉴욕 및 제네바 사무소와 긴밀하게 협력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인턴으로서 내가 수행한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잘 적용하여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우수 기업 사례를 찾아 케이스 스터디로 발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각 국가마다 설립되어 있는 글로벌 컴팩트 로컬 네트워크 담당자들과 화상이나 전화로 주간 회의를 진행하며 기초 자료를 모으고, 1차 취합된 자료를 팀 분들 및 홍콩에 있는 컨설턴트 분과 다시 한번 의논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독창적인 사례를 발굴하였다. 친환경 신소재 독자 개발로 지역 환경 보호, 원가 절감 및 지속 가능한 이익 증대까지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린 일본 중소기업 Toppan Printing의 사례와 정부 및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쓰나미로 수해를 입은 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코카콜라 태국지사의 사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임무는 이렇게 잘 정리된 10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발간하도록 글로벌 컴팩트 아태지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필드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출신 인턴과 2인 1조로 아이디어를 다듬어 필드 현장에 있는 국가 담당자들이 본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포럼 기능을 추가하고, 글로벌 컴팩트의 4대 핵심 분야인(인권/노동/환경/반부패) 의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컨설팅 기능

활성화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 개발을 장려하는 이벤트 및 컨퍼런스 준비 역할을 맡아 2009년 11월4일부터 6일에 진행된 “Trade and Investment Week” 연례 주간에 열린 “Green Business Network 발족식” 과 전야제 성격의 “아태지역 CEO 라운드 테이블” 을 진행하였다. 여름과 가을 내내 고생 끝에 발굴해 낸 사례 담당자들을 직접 초청하고 상사 분의 배려로 주요 의제와 식순까지 직접 기획하며 진행했던 행사라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보니 분위기가 매우 역동적이었고 의사결정 과정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인턴십 기간 : (2) 유엔에서 일하기 위한 절대 방정식은 없다

특히 UNESCAP에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 근무 중이신 한국 직원 분들도 있었지만, 한국의 노동 인권 NGO에서 일한 필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방콕까지 오신 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합격과 불합격이 시험으로 결정되는 고시나 취업처럼 유엔 진출에도 획일화 된 방식이 존재한다고 믿기 쉬운데,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전문성을 살린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전문가 분들이 유엔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들일 수록 본부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컸으며, 주간 회의 때는 도요타 근무와 같은 기업이나 민간 NGO 경력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시각으로 개발 문제를 접근하시는 일본과 미얀마, 네덜란드 직원 분들을 같은 부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팀의 직속 상사로 계시던 Helina 님 역시 홍콩 상공회의소와 세계식량기구 태국 사무소를 오가며 공공과 민간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한낱 인턴인 내게도 항상 본부에서의 서류 업무에 함몰되지 말고 늘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무엇보다도 업무 능력보다는 열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학부생 인턴을 위해 주간 회의 마감 전 10분 동안 본인의 이메일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다국적 환경에서 일할 때 필요한 업무 에티켓을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까마득한 후배 인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본인의 시간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유엔 직원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인턴십 기간 : (3) 업무를 벗어나면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만난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인턴십 기간 동안 참석할 수 있는 내부 강연 행사다. 업무를 위해 이메일 더미에 늘 과문혀 있다가는 시야를 넓힐 수 없겠다는 생각에 상사 분의 배려로 유엔 내부의 큰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참석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Joseph Stiglitz) 교수의 방문이었다. 특히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미국 경제 위기 이후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들려주는 자리였기에, 대회의장이 가득 찰 정도로 직원 및 인턴들의 열기가 뜨거웠고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도 자유롭게 오갔다.

깜짝 강연과 더불어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 것은 이따금씩 기회가 주어지는 외국어 강습 세션과 동료 인턴들과의 교류였다. 태국어를 하나도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작하게 된 방콕 근무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다. 인사 담당자 분이 보내 준 서류에서 어렵게 머물 집을 구했으나, 막상 도착해보니 계약에 문제가 있어 같은 부서 유럽 인턴들의 도움으로 발품을 팔아 새로운 집을 적당한 가격에 겨우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제기구 인턴십이 무보수 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신분인 인턴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므로 동료 인턴들과 항상 현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콕은 UNESCAP 이외에 UNICEF, UNESCO 등 다양한 국제기구 사무소들이 밀집해 있어 타 기구에서 일하는 인턴을 만날 기회도 종종 있다. 각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었는지는 물론 업무와 관련해 타인의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에 인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다.

인턴십을 마치며 : 다시 끝이 아닌 시작에 서서

국제기구 인턴십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저게 과연 내가 꿈꿔 볼 수 있는 일일까?’ 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자아내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국내에서 나고 자라 어렸을 적 외국에 체류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짧고도 긴 5개월의 인턴십 동안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많은 유엔 직원 중 영어가 모국어인 직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완벽한 어학 실력 배양에 많은 시간을 쏟기 이전에, 유엔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를

쌓고 지구촌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열정으로 부족하나마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방콕에서 만난 많은 외국 인턴들은 대부분 “인턴십을 통해 무엇을 얻어갈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인턴십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봉사와 사명감의 자세를 잊지 않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한다면 진심으로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믿는다.

본인 역시 짧지만 강렬했던 인턴십으로 유엔을 접한 뒤, “언제나 필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위해 노력하라”는 상사분의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지구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망설임 없이 관련 industry 에서 먼저 생생한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끝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소중한 결심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인턴십이 끝난 지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방콕에서 만난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본인을 한층 성숙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기에 부족하나마 이 짧은 경험담이 지금 국제기구 인턴십을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마지막으로 인턴십 기간 동안 늘 책상에 붙여 두었던 짧은 문구 한 줄을 공유하며 이 글을 마친다.

“Men are wise in proportion, not to their experience,

but to their capacity for experience.” - George Bernard Shaw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진다. -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 끝 /

(첨부) 소중한 순간들

	
<p>출근 첫 날 사진이 담긴 유엔 인턴 출입증</p>	<p>4개월 간 준비한 첫 컨퍼런스: Green Business Network</p>
	
<p>무역개발부 연례 주간 행사를 마치고</p>	<p>언제나 열정이 넘치던 유엔 직원 분들</p>
	
<p>주 태국 한국대사님의 초대로 함께 모인 한국 인턴들</p>	<p>컨퍼런스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무역개발부 인턴들</p>